



국제앰네스티 보도자료

엠바고: 2016년 3월 9일(수) GMT 00:01 이후 보도

북한: 외부세계와의 통신에 대한 통제 강화, 가족들을 절망 속에 몰아넣다

- 에통신 대한 이제한 의복한 심한극 을인권상황 더욱 악화시켜

국제앰네스티가 금일 발표한 예보고서 따르면 북한 가정부 신기술통 에사용 대한 를통제 강화하면서 한북 주민들이 를휴대전화 이용해 외로국 출한탈 가족과 연락하다가 발각되는 경우 정치범수용소나 기타 로구금시설 보내지는 위험을 주하고마 있다는 점이 낫다러드.

번이 보고서 제된통』 사회, 단절된 삶: 한북 내 휴대전화 사용 및 부세계외 정보 제한 는『실태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자국민에 대한 한북 국의당 통제, 억압, 이위협 강화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 당국이 절대적·조직적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해외 거주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보복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또 "이 같은 억압을 소위 '자본주의 독소'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당화하는 김정은의 태도는 기만적이다. 가족, 친지와 연락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에 충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구금하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국경은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고립시키고 북한 내 끔찍한 인권 상황에 관한 정보를 감추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최후의 전장이다.

북한의 국내용 이동전화 서비스는 가입자 수가 3 백만 명이 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북한 사람들의 국제전화 이용을 차단하고 있다. 월드와이드웹 접속은 외국인과 선택받은 소수에 한해 허용되며, 일부 북한 주민들은 국내 웹사이트와 이메일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형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대다수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양쪽 모두 가족들의 생사나 당국에 의해 가족들이 조사받거나 수감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북한 내 극심한 인권 상황의 구체적인 실상을 감추려는 북한 당국의 핵심적인 수단은 통신에 대한 절대적 통제다. 북한 주민들은 외부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들의 인권이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세계에 알리지 못하도록 억압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며 비공식 사적 경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상인들은 특히 인접국인 중국으로부터 식량, 의류, 기타 상품을 밀수해오고 있다. 실제 브랜드와 관계없이 통상 “중국 손전화”로 불리는 밀수된 휴대전화와 심카드의 불법적인 매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접경지대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이 중국 이동통신망에 접속해 외국에 거주하는 이들과 직접 통신할 수 있게 한다.

위태로운 생명선

중국 이동통신망에 접속하는 것은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통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북한을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들,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상인들에게 위태로운 생명선이 된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북한 주민들은 가족들과의 짧은 통화를 위해 엄청난 신변의 위험을 감수하며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외국에 있는 가족과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혐의를 받는 것은 매우 터무니 없다.”라고 밝혔다.

북한 외부에 는인 사람과의 통화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국타 통신 장비의 개인적인 매매는 에법 다된위배. “중국 손전화”로 통화를 하는 사람들은 국이나한 기타 적성국으로 분류된 곳에 사는 이들과 통화를 할 경우 반역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보다이 미한경 눈에험의 중개행위나 불법매매 행위가 포함된다.

시감 강화

본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디지털 시대에 주민들의 외부세계 접촉을 막기 위해 통제하고 억압하는 기술적 역량을 강화했음을 보여준다. 현대적인 감시·탐지 장비 수입과 중국 국경 인근에서의 신호 교란 장비 사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14년 북한을 이탈한 40대 여성인 은미는 “중국 손전화”를 사용했다가 체포된 적이 있다. 은미는 국제앰네스티에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27국은 감시 장비를 가지고 있다. 기관 요원은 장비를 배낭에 넣고 붉은빛이 깜빡이는 안테나 모양의 장비를 손에 잡고 있다. 그들은 그것이 탐지 장비라고 말했다. 27국 요원이 나를 체포하러 왔을 때 코트를 벗었는데 요원의 몸에 전선이 감겨있었다.”라고 증언했다.

북한을 떠나기 전 엔지니어로 일했던 박문은 통신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수입된 차세대 감시 장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회상했다. 박문은 국제앰네스티에 “그 장비는 휴대전화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신최 현대 기술 도입 외에도 대일의일 일상적 감시 역시 만연하다. 2014년 북한을 이탈한 중희의 경우 “두가모 를두모 감시했다. 옷이 간에, 에서터일 사람들이 서로를 감시했다”고 말했다.



갈취 및 구금

“중국 손전화”로 국제전화를 하다가 발각되는 사람은 누구든 교화시설로 보내지거나 심한 경우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될 위험에 처한다. 정부 내 연줄이 없는 사람의 경우 감옥행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뇌물을 주는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국제앰네스티에 요즘 일부 경우 체포의 진짜 이유가 뇌물요구로 보이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인 소경은 이런 위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심한 경우에는 장기 수감이 예상되는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질 수 있다. 좀 덜 한 경우에는 교화시설로 보내져 1~2 년 정도 수감된다. 대개 사람들은 뇌물을 주고 넘어간다.”

높은 비용

사람들은 해외로 전화하다가 발각되는 것을 피하려고 통화를 짧게 하며, 가명을 사용하고, 산 속으로 이동해 통화한다. 이는 신호 교란 장비를 피하고, 보안원에게 전화사용을 발각당할 확률을 낮춰준다.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중국 손전화”가 없는 북한 주민 가족에게 연락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이런 종류의 휴대전화를 가진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통화를 하는 것이다. 브로커 조직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내 남아있는 가족에게 송금할 필요성에서 생겨났지만, 돈을 받고 이들 가족 간의 통신 채널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 비용은 매우 비싸다. 통화 주선에 관여하는 브로커는 미화 1,000 달러의 송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30%의 수수료를 떼간다. 또 북한 보위부 요원이 송금을 차단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송금액이 수취인에게 도달할 것이라는 어떤 보장도 없다.

최지우는 브로커가 북한에 있는 집으로 찾아와 아버지가 보낸 편지가 있다고 말했던 일을 회상했다. 편지 안에는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브로커의 지시를 따라달라는 아버지의 요청이 담겨있었다. 최지우는 그로부터 수개월 전에 보위부 요원들로부터 부모님이 북한을 탈출하려다가 사망했다는 말을 들은 상태였다. 사실 최지우의 부모는 탈북에 성공해 한국에 도착했지만, 이를 자신의 딸에게 알릴 방법이 없었다.

지우는최 부모님과 통화할 수 있다는 박한절 기대를 품고 브로커와 함께 위험천만한 여정에 나섰다. “어떤 때는 밤새 산을 넘기도 했다. 산을 둘러갈 수도 없고, 낮에는 안 되고 밤에만 움직일 수 있었다. 손전등도 쓸 수 없어 새카만 밤이었다. 한 발 앞도 안 보였다. 엄마, 아빠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을 수만 있다면, 생사만이라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다. 브로커가 전화를 하는데 아빠 목소리가 맞는 거다. ‘살아있구나, 아빠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만 들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북한 내 가족들에게 비밀리에 중국제 휴대전화와 심카드를 보낼 수도 있는데, 이는 북한 내 가족에게는 위협을 무릅쓰는 일이다. 이 과정에는 보통 국경지대에 근무하는 군인에게 뇌물을 줘야한다. 국경지대 검문소의 보안이 강화되면서 뇌물액수가 올라갔으며 현재는 미화 500 달러 수준에 달하기도 한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북한 당국은 와계부세외 연락을 취하려는 자국민에 대한 억압적인 통제를 단해야중 한다. 한북 내외부로 자유로이 정보를 고주 받을 의권리 만연적 눈침해 북한 내 인권의 심각한 탈이박 속되는지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부당한 제한을 철회하고 국가 내외부의 개인 간 간섭 없는 정보의 출입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기에는여 북한 에게들주민 월드와이드웹과 국제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완전하고 검열 없는 접속을 허용할 것이 포함된다. 한또, 북한 당국은 불필요하며, 불특정적이며, 정당한 목적이 없는 통신 감시 및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에서북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 규모, 본질은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기에는여 결사의·정보·표현·의사 자유에 대한 가권리 의거 히완전 고되부정 있다는 점도 다됐포함. 이 같은 로조사결과 북한에 대한 국제적 이압력 가중되었으며, 후에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내 극심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고사항

지우의최 경우를 는제외하고 인터뷰에 동의한 북한 주민의 신변보호를 위해 을명가 했음용사. 바고가엠 걸린 와보고서 기타 보충 자료 전사 요청, 터뷰인 요청 등 더 자세한 는정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할 것.

- 공홍: Tom Mackey, 동아시아 언론 담당 + 852 6026 3992 tom.mackey@amnesty.org
- 서울: 양은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슈커뮤니케이션팀장이, +82 (0)2 730 4755 eunsun.yang@amnesty.or.kr
- 런던: 국제앰네스티 언론실 +44207 413 5566, press@amnesty.org
- 트위터: @arnldfang(동아시아 조사관), @Bequelin(동아시아 사무소장), @amnestypress

서울 기자회견

국제앰네스티는 3월 9일 수요일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전화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일시: 2016 년 3 월 9 일(수) 오전 10 시 (현지시간)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 층,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우) 04520

끝.